

이건희컬렉션 '피카소 도예' 작품 107점 광주 온다

9월 29일까지 ACC 복합전시 4관 예술인생 말년에 '도예' 회화 천착 얼굴·여인·동물 등 입체적 재해석 일상적 기물 캔버스로 활용 치환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 전이 1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4관에서 열려 이강현 ACC전당장과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김선옥 ACC재단 사장 등이 '큰 새와 검은 얼굴' 등의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전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 열린다.

김양배 기자

20세기 현대미술의 천재화가로 불린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는 그의 예술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도자'에 전착했다. 피카소가 도예를 접했던 시기는 이미 그의 독특한 회화 양식이 정점을 이룬 시기였다. 그의 도예 작품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넘어 회화의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치환된다.

피카소의 도예 작품을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김성희)과 함께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ACC 복합전시 4관에서 MMCA 이견희컬렉션 '피카소 도예' 전시를 개최한다. ACC는 16일 오후 2시 개막식을 갖고, 오후 4시부터 피카소 도예 작품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이은 두 번째 순회 전시로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콘텐츠를 보다 많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ACC와 MMCA가 함께 마련했다.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피카소 도예 작품은 지난 2021년故 이견희 삼성 회장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피카소 도자 작품 112점 중 107점이다.

입체주의의 선구자이며 현대미술의 천재 화가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는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판화, 도예, 무대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은 열정적인 예술가였다. 이번 '피카소 도예' 전시에서는 피카소의 생애와 화풍의 변화를 그의 도자 작품에 집중해 분석하고 피카소 도예가 현대 도예에 미친 영향과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본다.

전시는 아홉 개의 주제인 여인, 신화, 동물, 율빠미, 얼굴, 투우, 사람들, 정물과

풍경, 도예와 판화로 구분된다. 피카소의 예술인생을 시기별로 분류한 아카이브 전시와 다류 영화 상영 장면도 엿볼 수 있다. 피카소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는 유희적이고 천진난만한 풍경으로 재탄생된다. 피카소 특유의 입체파 화풍이 드러난 도예의 회화적 조형성이 눈길을 끈다.

지난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출생한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미술에 천재적인 역량을 보여주며 청색시대(1901-1904년)와 장밋빛 시대(1904-1906년)를 거쳐 본인만의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는 입체주의

(1907-1916년)를 선도했다.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1946년 프랑스 남부 발로리스의 도자 연례전을 방문해 그곳에서 마주한 도자의 조형성에 크게 매료돼 이를 계기로 3000여 점의 도자 작품을 제작했다.

4차원의 시공간 개념을 2차원의 캔버스에 표현했던 피카소의 입체주의 회화는 도자의 조형성을 만나 더욱 다층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됐다. 피카소는 도자 자체를 캔버스로 여기고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시키면서 작품을 제작했는데 특히 그

의 새로운 시도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생산됐던 도자가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카소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도예 작품 107점 외에도 피카소가 직접 스케치 한 포스터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ACC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해설을 제공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주어진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며 작품에 대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관람 환경도 연출했다. 또 ACC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장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모듈형 벽체를 활용해 제작, 폐자재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피카소 도예' 전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피카소 도예전"은 지역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한 콘텐츠를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라면서 "현대미술과 도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피카소 도예 작품을 통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모노타이프·소묘판법... 현대판화 감상해 볼까?

장원석·박일광 2인 'UBUNTU' 내달 1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예술의전당은 현대판화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장원석·박일광 작가 2인전 'UBUNTU'를 오는 8월 11일까지 갤러리에서 연다. 상이한 매력을 지닌 두 작가가 다양한 판화기법으로 제작한 작품 40여 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장원석 작가는 동양의 절경을 담은 고화(古畵)를 소재로 작품을 선보인다. 겸재 정선의 인왕계색도를 비롯해 수직으로 낙하하는 박연폭포를 담은 박생연 등 조선시대 산수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산수화 먹의 농담과 필치 등에서 단색으로 처리해 판화의 모노크롬 형태로 화면의 구성을 표현하고 있다. 조각도로 섬세한 터치를 새겨 넣으며, 선과 면의 교차를 통해 현대판 산수화를 새롭게 펼쳐낸다.

박일광 작가의 작품 속에는 소박한 삶의 이야기, 숲길을 걸으며 만나는 자연과 동물들이 담겨있다. 작가는 일상의 순간과 찰나의 장면을 판화의 모노타이프 기법과 한국화 전통 채색기법을 접목해 포착한다. 모노타이프 기법은 판에 그린 이미지에 압력을 가한 후 판화지에 찍어내는 표현기법이다.

두 작가는 자신만의 판화 형식을 끊임 없이 모색한다. 판화만의 고유한 매력을 서로 다른 기법으로 풀어내면서, 자연이 선사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판화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주제 우분투(UBUNTU)는 아프리카 남부 반투족의 언어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원석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판



장원석 작 'Reinterpret-박생연'.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화 미디어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까지 개인전 15회를 가졌다. 단원미술대전 최우수상, 무등미술대전 최우수상, 대만 국제 판화 비엔날레 입상 등 다수 수상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박일광 작가는 개인전 7회 및 다수의 단체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광주실크스크린공방 공동대표, 광주판화가협회, 국제판화교류회, 선묵회, 미생회, 황토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저녁 공연 있는 날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도선인 기자

광주사람들이 사랑한 노래와 극장 '토크콘서트'

7월 19일·8월 8일 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지난달 20일 개막한 특별전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오는 19일과 8월 8일 예정돼 있으며 광주의 노래와 극장 이야기를 나눈다.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 전시회는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의 역사를 조명한다. 또 광주의 대중문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전 세대별로 향수를 자극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연계 토크콘서트는 전시 4부의 내용인 광주의 극장문화와 대중가요가 주제다.

먼저 오는 19일에 열리는 1회차 '광주의 노래 이야기'에서는 지역의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최유준 전남대 교수와 주광한국방송DJ협회 이사가 출연한다. 이들은 광주의 시대상을 담은 노래들과 잊혀진 전일방송(VOC)대학가요제의 기억을 되살린다.

시대별로 불린 광주의 노래를 살펴보

고, 1980년 5월의 아픔을 어떤 노래로 승화했는지도 알아본다.

8월 8일에 예정된 2회차에서는 '광주의 극장 이야기'가 진행된다.

1935년 개관 이래 89주년을 맞이한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사라져간 광주의 극장들을 만나본다.

호남과 광주의 극장 문화를 꾸준히 연구해 온 위경혜 교수(전남대)와 광주극장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김형수 광주극장 전무이사와 함께 영화를 사랑한 광주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들여다 본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 연계 토크콘서트는 광주의 대중문화를 연구자와 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조명한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는 오는 19일과 8월 8일 두 차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

된다.

광주의 대중문화와 노래, 극장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관련 문의는 전화(062-613-5364)로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NYT 21세기 100대 도서, 파친코 15위·채식주의자 49위

"4대 걸친 한국 가족 연대기"

소설 '파친코'와 '채식주의자'가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21세기 100대 도서'에 선정됐다.

지난 13일 NYT는 2000년 1월 이후 출간한 도서를 대상으로 소설가와 논픽션 작가, 시인, 평론가 등 503명이 책 10권을 추

천하는 방식으로 100대 도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진의 '파친코'는 15위,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49위에 이름을 올렸다.

NYT는 파친코에 대해 "4대에 걸친 전쟁과 식민지, 개인적 갈등을 겪은 한국 가족의 풍요롭고 요동치는 연대기"라고 소개했다.

채식주의자에 대해선 "작가의 작은 반

항심이 맴돌면서 소설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초현실적인 고찰이 된다"고 평가했다.

100대 도서 1위에는 이탈리아 나폴리를 배경으로 두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엘레나 페란테의 '나의 눈부신 친구'가 올랐고 2위는 미국 흑인들이 남부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그린 이사벨 윌커슨의 역사서 '다른 태양들의 따뜻함'이 차지했다. 뉴시스